#### *소식지* 제7호

2012년 2월1일 발행 발행인 주교 가토 히로미치 편집인 사제 나카무라 쥰





이시노마키 • 재택 피해자분과 함께 (자유시장 형식의 물자지워)



외국인 어린이에게 선물을 전하기 위해, 살며시 다가오는 산타 (이시노마키)

# 만남으로부터 넓어진 지원 운반 센다이권베이스 활동 1

센다이에는 프로젝트 전체 사무국 기능과 함께 지원 거점으로의 활동이 있습니다. 중요한활동 장소는 미야기현 이지만, 관계의 시작은 피해입은 신도의 구조로부터 시작해, 이웃분, 친구들에게 운반이 넓어졌습니다.센다이권 베이스 황동 가운데 시즈가와, 이소야마는 벌써특집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시노마키, 모로네에 관해 전하겠습니다.



구기타가미가와 이시노마키. 왼쪽위 원형의 백색건물은 이시노모리 만화관, 그 오른쪽 2 번째 집 작게 보이는 것이 이시노마키 정교회 성당



복원 공사중인 무로네 성 나타나엘 교회

### 이시노마키에서의 활동① 어민지원 이시노마키시 키타카미 「쥬산하마」

스텝 부제 키시모토 노조미 (키타칸토 교구)

본 프로젝트에서는 쓰나미 피해의 한 가운데에서 생업 재건에 힘쓰고 있는 어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쥬산하마에 사는 어민은, 쓰나미에 의해 가족과 주택뿐만이 아니라, 어선, 어구, 가공시설, 어협 건물 등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2011年5月경, 이시노마키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있는 「루터교 이웃사람」의 스텝으로 부터「이시노마키시 키타카미 쥬산하마 오시지구의 재택 피해자 지원 물자를 운반하고 있을 때, 본 프로젝트와 함께 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후 S 씨 집을 방문하고, 근처의 재택피해자 수채분을 포함해 물자 지원을 8월까지 했습니다.



【작년 12월 미역 교배 풍경. 이 작업 지원도 생각 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수확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문 삽입 편집부】

S 씨 집에는 친척인 미야기현 어협 기타가미 쥬산하마 지부의 운영위원장으로 6 월 부터 복귀한 사토 키요미치 씨가 피난하고 있을 때, 물자지원 후 지원방법에 관해, 주 1 회 베이스에서 협의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 고장의 어업관계자는 처음 독립심이 강해서 「계약계」라고 불리는 자조 조직과 「어협」은 활동하고 있는 분의 ,

【지반 침하로 침수된 오시어항

작년 11 月경 광경】



기정미마 일한 시간, 작업내용, 어선과 도구의 방법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번의 전대미문의 재해를 겪고, 계약계마다 남은 어선을 같이 타고수확을 나누는 「협업」을 2013 년 봄의 미역수확기까지의 예정으로, 생활 부활(2011 년은수확직전에 쓰나미가 덮쳐 무수입)에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생활 부활을 향해 가진 가진 자금의 적립을 원조하고, 어협 지부가 주최한 「미역부활 지원 서포터 지도」를 일본성공회 내와 각 관계 단체에 소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협력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 2012 년 2 월말~4 월 말까지의 미역수확봉사자 파견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역수확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내용이 있어, 많은 사람의 손이 요구 되고있습니다. 사토 키요미치 씨로부터는 「전부를잃고 어안이 벙벙하고 있는 중 성공회 분을시작으로 많은 지원자가 찾아주시고, 앞을 향해출발 감사하고 하는 결의를 어민들에게 솟아나게했습니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 에게는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 이시노마키 에서의 활동2

#### 재일외국인지원

스텝

이와모토 쇼타 (교토교구)

저는 외국에서 일본에와 결혼한 여성과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분들, 재해 직후 피난소에 들어가지 않고 자택 등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계신분들 등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분 한분의 저마다의 생각, 느낌, 드라마 등이 있어 한 마디로 통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月경에는 피난소 분들과 재택 피난자분, 양쪽 모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긴급적인 문제로 현재는 그 시기를 끝내고 어느 정도 상황은 안정 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시내 가게의 재개, 긴급한 지원물자 포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을 받아 왔던 분들도 있었고 별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받을 수가 없었다는 분도 존재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외국인 분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분이라도 지원을 받은 분도 있었지만, 압도적으로 적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언어도, 습관도,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곤란이지만, 대규모 재난을 겪고 생활하는 것은 대단한 곤란입니다.

현재 저는 여러나라에서 오신 분들과 관계를 맺어 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역시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몰랐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지원은 물적지원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도와주는, 언제라도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번 방문하고, 이야기를 하는 지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는 사운데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지원하면 좋은 것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원을 마음에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 무료네를 베이스로 하는 활동

(이와테현 무로네 성 나타나엘교회) 스텝 야마모토 히사오 (큐슈교구)

무로네 성 나타나엘 교회는 이치노세키시 동쪽에 있고, 게센누마시에 붙어 있는 장소입니다. 지진 영향으로 대부분의 흙벽이 벗겨져 떨어져, 목수와함께 벽의 교환 공사를 한 결과 안에 들어가면 훌륭한 산막의 분위기를 가진 건물이 되었습니다.



떨어졌던 욕조도 안에 들여 놓으니, 밖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훌륭한 북유럽풍의 장식입니다.

여름에는 요코하마 교구를 시작으로 고베교구, 성공회 신학원과 그와 학교 관계, 청년캠프가 무로네를 거점으로해 게센누마에의 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가을부터는 프로젝트가 관계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 센심회의 「작업장히마와리」에 일손을 도우러 가기 위해 이곳에서 숙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게센누마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모여 세운 「NPO/NGO 연락회」에 참가하고, 타 단체와 협동으로 이치노세키시에 세워진 가설주택과 관계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공터에 92 세대에 이르는 가설주택은 교회로부터 가까우므로 교회를 베이스로 여러가지 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와

#### 12月의 주요활동 (센다이 베이스)

#### ●후쿠시마어린이들과 함께

원발사고에 따라, 밖에서 놀수 없었던 어린이들을 센다이에 초대하는 생각, 마음껏 밖에서 노는 계획을 했습니다. 야마가타현 히가시네시에서 사과 따기를 즐겁게, 센다이 프란시스 교회 일요학교에도 참가했습니다.

#### ●시즈가와 프로그램

시즈가와 일본어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가면 올 3월 경에는 헬퍼 2급 자격을 딸것 같습니다.

#### ◎신지프로젝트

이소야마 교회로부터 제단 다른 비품을 이동했습니다. 1 월에 스텐글라스도 보관을 위해 교구 시설에 옮길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반수 이상의 분들이 「옛날에는 릿쿄대학 학생들이 많이 왔었다」라든지「이 교회에 자주 놀러 왔었다」「도레파 선생 (\*편집자 주 사제. 미국 성공회로부터의 선교사. 무로네 교회 개척자)를 알고 있다」라는 옛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지역에서 교회가 완수한 역할은 컸었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다시 모로네성 나타나엘 교회에 등불이 커져, 피해지지원의 베이스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 ●신원불명자 위령제

대재해로부터 9개월을 맡이한 12월 11일 (일) 오후 2시 반경, 미야기현 종교법인 연락협의회에 의해 신원불명자 유골의 위령이 행해졌습니다. 이번 달은 불교 관계자가 담당으로 법요에 의해 치러졌습니다. 성공회로부터는

「함께건자!프로젝트」스텝 마쯔무라씨와 센다이 성 프란시스 교회 가게야마 사제가 참례했습니다.

#### ●센다이 오피스에 이용봉사자가 오다

센다이시내 가설에 살고 계시는 ㅇ씨(이용사) 가 이발 봉사를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 몸 치장을 할까할 때여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함께 걷자! 프로젝트』 사무국

【open】월~금 10:00~17:00 【close】토,일, 축일

〒980-083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고쿠분쵸 3-4-5 크라이스 빌딩 2층

TEL:022-265-5221 FAX:022-748-5321

E-mail:walk@nskk.org URL:http://www.nskk.org/walk/